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대림절:**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구간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 ② **수련회:** 신년맞이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현 공동체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소: 2596 Cambridge, TeAwamutu
일시: 2012년 1월 7일(토)~8일(주일)
- ③ **기도:** 선교 중인 담임 목사와 탐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정: 11.30-12.7 탐장: 이태한 탐원: 진혜령, 김순자, 방명아, 김선화, 육이수, 최은수, 조주찬, 권준현, 이민우, 김규연)
- ④ **성탄축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전야제 축제를 24일 오후 6시에 교회 본당에서 갖습니다. 교회학교와 가족별, 혹은 선교회별로 함께 준비해 봅시다. (1부: 예배, 2부: 축제, 3부: 교제)
- ⑤ **총회결과:** 남녀 선교회 임원 들입니다. 기도하는 선교회가 됩시다.
1남: 회장-장세환, 총무-최충일
2남: 회장-박덕철, 총무-이정인
3남: 회장-김광영, 총무-차영철
1여: 회장-박후임, 총무-민선희, 회계-오지연
2여: 회장-정혜숙, 총무-김윤숙, 회계-김선화
3여: 회장-박수현, 총무-박혜숙, 회계-심경순
- ⑥ **현혈:** 기석 형제 골수 이식을 위한 예비 검사에 혈액형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⑦ **모임:** 남녀 선교회 신 임원 모임이 다음 주(11일) 1부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4남녀 선교회 총회는 다음주(11일) 1부 예배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국내 선교지

- ▷밀알장애우 봉사

12월 교회 일지

- 대림절 2:
12월 4일 (주일)
- 대림절 3:
12월 11일 (주일)
- 대림절 4:
12월 18일 (주일)
- 성탄절, 송년주일:
12월 25일 (주일)
-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토요일)

12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4일	이동술	박형길	이성희
11일	최득수	김성희	이숙희
18일	김교섭	김정민	이순옥
25일	정관영	진혜령	김수원

예배안내: 추미선/이경자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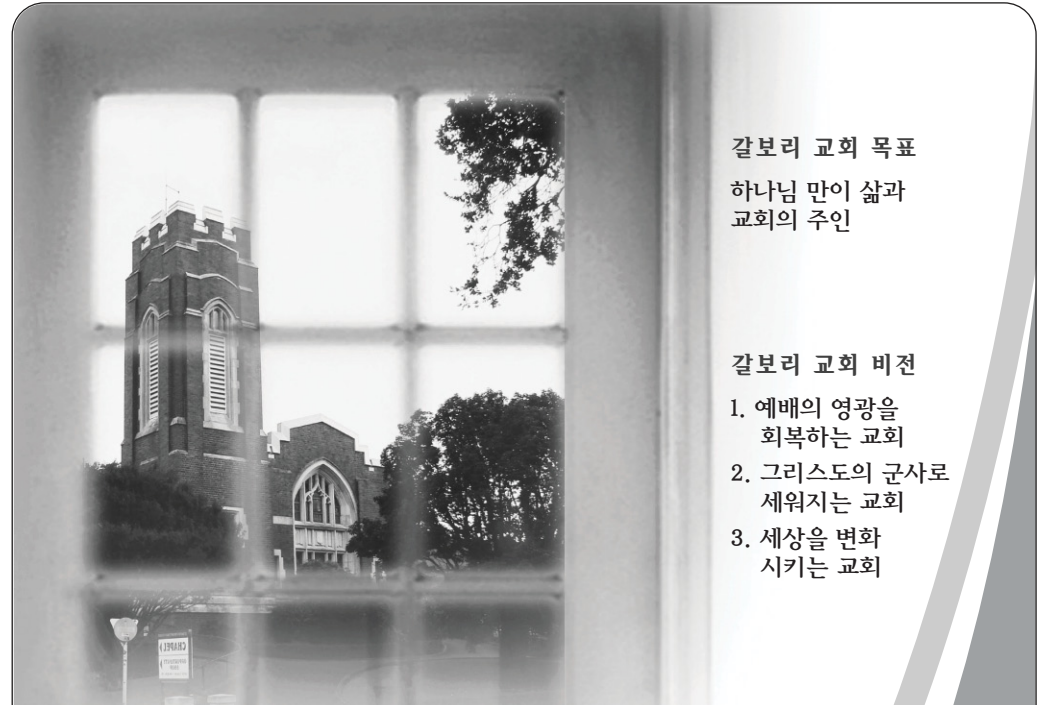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 휴무장로 : 김영길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 지휘 : 윤형권
- 반주 : 송민영, 유지선

교우 소식

수술: 최득수 집사 - 성대 물혹 제거 수술이 지난 목요일 Northshore Hospital 에서 있었습니다.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골수 이식 준비를 하는 기석이에게 담대함과 일치하는 기증자가 생기도록. 기석이를 비롯한 가족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2. 육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성도들의 비자, 직장, 생업문제에 형통함이 있도록.
3.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마음을 깨닫는 대림절이 되도록,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4. 기도하는 선교회 임원, 회원들을 섬기는 임원, 연합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단기 선교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2월 4일

주보 13권 49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심창진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누가복음 3:4-6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5장	다함께
*성서교독	116. 구주 강림(2)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0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동술집사	
성경봉독	시편 27:1-1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산 자들의 땅에서 기다리는 은혜	심창진목사
찬송	29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심창진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최득수집사 12월 18일: 김교섭장로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100.00 총계: \$602,791.19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다함께		
기도	박형길형제		
성경봉독	에스겔 20:33-39	인도자	
설교	거룩한 이름	심창진목사	
찬송	비전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 주 기도: 김성희집사

성서교독 116. 구주 강림(2)

이세의 즐거이에서 한 씩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혀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핏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뱉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뵈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씩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다함께		
기도	이성희집사		
성경봉독	사사기 5:1-18	인도자	
설교	드보라의 노래1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360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 애찬 기도: 김영옥권사
다음 주 기도: 이숙희집사

갈보리 칼럼

병실에서

“Not Yet?”

밥이 아니면 주식으로 치지 않던 밥만 좋아하던 내가 일주일쯤 굶고 지른 소리치곤 너무 커나도 놀랐단다. 속구쳐 튀어 오르듯 일어난 나를 지키고 있던 간호사가 다독여 놓인 후 어깨를 쓰다듬듯 달래더군. 회복실은 온통 푸른 영광 빛으로 보였고 그 앞에서 걸어 다니는 제복 입은 이들은 수초처럼 흐느적거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웅얼웅얼하고 있었어.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않은 어떤 사차원의 세계. 그리곤 다시 혼곤한 잠속으로...

병실로 돌아오니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더군. 식을세라 껌껌이 싸운 스테인리스 주발 속의 녹두죽, 그리고 손수 담은 오이지가 알큰하게 무쳐 담겨 있었어. 어머니의 그러한 눈물과 함께 삼키는 몇순간의 죽은 나에게 잇을 수 없는 칭찬이었다.

가끔 홀로 깨어 있는 밤이 행복할 때가 있지. 시간을 알 수 없는 이 미명은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그 오늘일까, 그때의 내일일까. 누군가 그랬어, 새벽은 영혼의 시간이라고. 꿈틀대며 따리를 틀어대는 온갖 사념들이 칠퍼리처럼 파고들더군. 공포에 질려 아직 이냐고 묻고 경중거리는 내게 그분은 조용한 톤으로 “그래 아직 이야” 그리곤 돌 주머니 떼주고 반창고 붙이고 등 밑에 나를 내 보내셨지. 세월을 아끼지 않은 죄와 남겨주신 많지 않은 시간 앞에 한없이 작아지며 흠어들어는 나를 겨우 붙들고 있었어. 평생 내 나뭇으로 움켜쥐었던 세월을 스스로 놓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 그렇게 희부연한 새벽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는 고통과 같은 불면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네. 꿈이라도 잡아야 흠어들어는 나를 더 빨리 추스를 텐데...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멎을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을 잃으면 죽는다 하데. 그래서 어떤 이는 25세에 이미 죽었고 다만 장례를 75세에 치른다 하더군.

난 나의 꿈을 찾을 거야. 반세기 전쯤 덮어두었던 꿈의 샘물을 찾아 떠날까 해. 어디쯤인

- 이경자 권사

가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그곳엔 아직도 깊고 찬 샘물이 솟고 있을 것 같아.

능소화 즐기 엮여 남은 두레박 줄 바꾸고 보름달 반으로 잘라 두레박 만들고 켜켜이 쌓인 솔잎 걸어내고 나면 가꿈은 진달래 꽃잎도 담겨 올라오지 않겠니? 난 더 열심히 나의 마음을 글로 퍼올릴 거야.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난 더 없이 행복할 테지. 그리고 내 글을 읽고 어떤 이가 사뭇 미소 지을 수 있고, 늘 바쁜 어떤 이가 한숨 돌리며 신들께를 고치고, 힘들어 고개 숙인 어떤 이가 잠시 푸른 하늘을 올려보며, 세상 속의 치부를 위해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하던 어떤 이가 잠시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그리고 잠시 건강을 잃고 있는 어떤 이가 희망을 안을 수 있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아온 나의 죄가 조금은 면죄되지 않을까?

씩은 돌 주머니와 바뀐나가는 꿈 주머니, 이만큼 이익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 그분은 참으로 오묘하시지 않니?

꿈을 갖은 사람의 발걸음은 부지런하다 했다.

이른 아침 내 너의 병실을 찾아갔다 되돌아왔다. 내 너를 만나 무슨 말을 하라, “나 오늘 퇴원해” 이렇게 말하리? 난 너와의 첫 대면이 병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기도하곤 해. 속히 돌아와 우리 모두의 결의로. 실록같은 푸름으로, 푸른 대나무처럼 곧고 늠름하게...

가드레일 잡고 서 있는 맨발 위로 후두두 눈물방울이 떨어지더라. 너를 두고 나가는 안쓰러움과 미안한 할머니의 마음일 거야. 하지만, 너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며 눈물이기도 하지. 꿈을 잃지 마라 칠십을 눈앞에 둔 할머니도 아픔을 꿈의 배낭으로 바꾸어 매는데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소유주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테니. 기섭아, 기섭아,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